

『네모의 기록이야기』

전가희 지음, 도서출판 선인, 2020

권용찬(Kwon, Yongchan)*

서평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작업이다. 무엇보다 책을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뭐라고 서평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생긴다. 사실 기록관리를 공부하고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덧 지방공기업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일을 하며 글쓰기를 놓아버린 나에게는 더욱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네모의 기록이야기'를 읽는 동안 나는 각 장과 각 편이 어렵게 읽혀지지 않았고 글이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이해됐다.

책머리에 저자가 쓴 글귀에도 이 책은 전문서와 교양서의 중간쯤에 있다고 했으니 나 또한 그 중간쯤에서 책을 받아들이고 읽은 거 같다. 그 말처럼 우선 이 책은 전문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정리되어 있다. 물론 중간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법과 제도, 역사, 인물 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서평에 앞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몇 년 전에 경남기록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기록원 직원 몇 명과 함께 저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업무 차 방문한 자리여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었다. 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radioyong7@gmail.com).

만, 업무협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경남기록원을 방문한 기억은 조용한 마을과 새로이 자리 잡은 기록원이 조화롭게 느껴졌고 비록 크고 웅장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꽤 좋은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아마도 그런 내 느낌이 맞았는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의 좋은 글이 모여져서 하나의 책이 만들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네모의 기록이야기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마다 10편 내외의 짧은 저자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짧은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 법률적 지식 등과 저자의 생각들이 곳곳에 녹아 있어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글의 구성은 기록 자체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중요한 기록을 관리하는 업(業)의 즐거움이 묻어난다.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며 그로 인해 나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잠시나마 나를 비교해 볼 수도 있었다.

1장 ‘기록과 사실’은 저자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바라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록과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 있으며 중요하다는 것은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으며, ‘기록’, ‘기록관리’ 등의 개별 객체와 행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엿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록관리도 함께 발전하고 조응해야 하는 스마트기록관리에 대한 글이 기억에 남기도 한다. 그 글을 통해서 기록관리를 공부하고 기록관리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나로서는 기록관리가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조화롭게 스마트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발전은 역사 속에서 기록에 대한 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여러 번 역사 속의 기록과 그 기록을 지켜

낸 사실,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다. 더불어 그런 기록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증거하기도 하고 그런 진실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 년 전의 누군가의 행위처럼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에서,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것이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 대목에서 책을 읽으며 어쩌면 그 수많은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시민을 위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기록은 시민에게로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기고, 누군가에게 잘 전달할 의무가 기록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기록(행위와 내용을 포함하여)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와 활동 속에서 기록을 통해 창조와 혁신은 견인될 것임을 저자는 이야기 한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기록관리를 하는 저자를 비롯한 많은 동료, 선·후배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대목이 생겼다. 기록전문가는 단순한 기능인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에 나는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 기능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전문가는 기능인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 때로는 선동도 필요하고 출중한 기능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함을 느낀다. 저자가 이야기 하는 품격 있는 기록관리, 기록전문가가 어쩔 그 비슷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2장 '기록과 사람'은 제목처럼 역사속의 인물들과 그와 관련된 기록을 이야기 한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故노무현 대통령을 '기록대통령'이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2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자의 어머니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의 공공기록관리의 틀을 만들고 노력했던 그분의 노력이 결

국은 나와 나의 삶, 구체적으로는 나의 어머니의 기록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것으로 귀결되는 구성을 의도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중간 중간 역사적인 인물과 그들의 기록, 그들의 기록행위와 의지를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과 시사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현재도 경상남도기록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연스레 경상남도 역사와 인물, 그를 둘러싼 역사기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간 잊혀져 있던 지역의 인물과 기록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때로는 담담하게 설명하지만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부터 민간영역의 기록, 더 나아가서는 일상의 기록과 구술까지도 폭 넓게 경험과 지향을 언급한다.

3장 ‘지방기록원 첫 걸음, 경상남도기록원 아카이브 경험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저자 본인이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기록관리 업무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나 짧지 않은 기간 기록관리 영역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기록원은 법률에 의해 건립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현재는 서울시와 경상남도만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그 외의 지역에서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기록원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 정립된 나름의 지향과 이론을 전문적이지만 쉽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카이브는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음을 3장을 통해 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 아카이브에서의 ‘연결’은 ‘기록’과 ‘기록관리’라는 객체와 행위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기록과 사람, 기록과 기록, 기록과 정보, 정보와 정보... 등등 수많은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카이브, 다시 말해 기록원은 많은 기록을 확보하고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기록이라도 잘 조직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을 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상남도기록원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출범하였

고 지금 이 순간도 많지 않은 인력이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자는 업무 경험과 고민 속에서 기록원과 기록관의 연대, 민간기록의 활성화를 위한 조언과 본인의 다짐을 수없이 말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저자가 부럽기도 했다.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기록전문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아님 잘 하려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4장 ‘다시 즐거운 혁신’에서는 다시금 기록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저자의 생각,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록연구사의 책무 등을 이야기한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연구사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게 관심사 중에 하나인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궁극적으로는 기록관리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음과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의 업인 기록관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즐거운’ 혁신이라는 글로 마무리 하고 있다.

‘네모의 기록이야기’는 그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유형의 기록관리계 저서이다. 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기록연구사로서의 업무수행에서 느끼고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책을 읽고 있으면 어찌면 이리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할까? 하는 생각과 이렇게도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저자가 풀어내는 많은 이야기 속에는 기본적으로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진다. 많은 도전과 고민, 실패,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부단히도 노력하며 성과를 이루어온 저자가 보여지기도 하며, 앞으로도 그 노력과 정진을 놓지 않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더욱 많이 뿌려주길 기대한다.